

# 허상으로 가려진 우리사회의 ‘치부’

전문가 칼럼

이성렬  
응용화학 교수



철학자들은 사물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인가?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많은 관점이 존재할 것인데, 이 관점 자체가 모호하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대상을 오직 부분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판결(The Verdict)>에서 의료사고의 진실을 집요하게 쫓는 주인공에게 담당판사는 말한다. “진실은 바다없는 우물의 바닥에 놓여 있네.” 이 시적인 발언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 진실이 명확하다면 사법제도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과연 사건의 실제, 즉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또한 진실의 추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일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다양한 정보는 사실보다 극히 애매한, 어떤 의도 또는 저의에 의하여 포장된, 조작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의미에서 ‘실체는 없고 이미지만 존재’한다는 인문학적 명제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즐겨 제시하는 이 명제의 진위를 떠나서, 이러한 개념이 어떤 대상, 인물에 대한 이미지의 관리, 조작 및 세태를 합리화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몇 가지를 들어보자. 연예계 기획사들은 끊임없이 허상의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 어떤 연예인은 개인적인 선행을 알리며 유리한 이미지를 유포하려 한다. 어떤 연예인은 버는 돈 모두를 부모에게 맡긴다거나, 소주 한 잔 마시면 병원에 실려 간다 등등 노이즈 마케팅으로 욕을 먹더



영화<매트릭스>는 시뮬라크르를 다룬 영화이다.

(사진=중앙일보DB)

라도 결코 잊혀가지 않으려 몸부림친다.

정치계 이미지 관리 및 조작은 국가의 존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점에서 영향력이 훨씬 크다. 지금도 시국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 뉴스와 가짜 이미지가 언론과 SNS를 장악한다.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이 나라를 빈사상태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언론에 의한 정보조작인 듯하다. 대중에 대한 보수 언론의 이미지 조작은 거의 세뇌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정치인의 본색을 알지 못했을까? 나는 이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꼼꼼한 이미지조작을 자행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간지 논설위원이 사표를 내던지고 정계로 진출한다면, 그가 그 동안 지면에 발표한 논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현상이다. 정치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정치인으로 출세하기를 갈망한다면 정보소비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대중의 치명적 약점을 이용하는 언론의 폐해를 어찌할 것인가?

진실의 추적은 몹시 어렵고 고통스

럽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는 아마도 과학자들이라 하겠다. 이들은 자연이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칙과 질서를 알아내려 노력한다. 자연의 비밀을 일단이나마 밝혀내었을 때의 기쁨이 이들의 동기일 것이다. DNA 구조를 연구한 왓슨-크릭 팀과 L. 폴링 사이의 경쟁 스토리는 어떠한 추리소설보다도 흥미진진하다. 과학자들이 얻어내려는 진실은 물론 ‘물질’에 대한 것이다.

인간 세상에 대한 진실의 파악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다. 물질이 정직한 것임에 반하여, 인간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은 실로 어려운 것이다. 지난 정부들에서 은폐되었던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거기에 밝혀진 진실의 맨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러나 인간 사회에도 중요한 진실의 추적자들은 존재한다. 위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워싱턴 포스트의 두 기자나, 미국 학자들이 에이즈 항체를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로부터 훔친 사실을 밝혀

낸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들이 좋은 예일 것이다.

‘실체는 없고 이미지만 존재’한다는 명제를 장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simulacre)라는 멋진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체라든가 진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보드리야르의 생각은 세계의 일부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라 생각한다. 교묘하게 조작된 이미지를 제거한 대상의 맨살을 보기는 극히 어렵긴 하다. 그러나 바이러스처럼 번식하는 세상의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이미지를 뒤에 사건, 사물들의 진실이 숨어있다고 나는 믿는다.

따라서 나는 보드리야르의 사상에 기반해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말아 보시기를.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가 바로 돈거래의 진실(의 일부)인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단단한 벽에 머리를 아주 세게 박아보시기를, 혹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이마에 생긴 시퍼런 멍에 주목해 보시기를.

참여마당

이태현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4)



## 취업난으로 무너진 상아탑 대학의 본질은 어디로

요즘 대학생들은 바쁘다. 학과공부 외에도 각종 공모전, 자격증, 영어점수,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 등 할 일이 많다. 수업시간에도 교수의 수업 대신 스펙을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학원 과제를 하는 학생들과 다를 바 없다. 고등학교 때 학원 과제를 우선시했던 이유가 사교육이 대입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면, 지금 강의시간에 스펙을 위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취업에 더 도움 되기 때문이다.

본디 대학의 존재 이유가 취업을 위함은 아니지만, 지금의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하나의 관문이 됐다. 정확히는 학사학위가 취업의 기본 조건이다.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하는 한국에서 학사학위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며, 대학을 다니는 이유이다. 취업은 학사학위 소지자들끼리의 경쟁이므로, 학사학위 비 소지는 감점요소이다. 학사학위를 기본으로 소지하고 그 외에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요소를 쌓아야 한다.

### 취업난 해결해야 대학 본질 찾을 수 있어

과거와 달리, 일자리는 풍족하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 중이고 경제성장률도 한 자릿수이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구직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다. 상경계열, 공학계열과 같이 기업이 선호하는 전공 외의 다른 전공들은 취업의 갈림돌이다.

실제로 필자가 다니는 외국어대학의 많은 학생이 학과공부보다는 공무원 시험 혹은 스펙 쌓기에 더 집중하거나, 상경계열 전과나 복수전공을 시도한다. 전공학문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많고, 전공공부는 취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학점을 따는 선에서 그칠 뿐이다. 전공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하며 전공공부가 의미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어때냐’고 물어보면 ‘다들 다니는 대학교고, 고졸은 뭇가 아닌 것 같아 학사학위만 취득하겠다’는 씁쓸한 대답이 돌아온다.

대학도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는 대학부터 취업박람회, 기업과의 교류협력, 고시반 신설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높은 취업률은 학교의 자랑이며,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취업률이 높은 학교에는 학교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학교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그들의 자구책이겠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대학이 학문의 전당보다는 취업수단이라는 이미지를 더 갖게 함은 사실이다.

본디 대학은 국가와 사회, 인류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다수에게 지금의 대학은 취업을 위한 도구, 간판 공장이다. 4년의 청춘이 낭비된다.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대학을 다니는가. 청춘이 마주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비효율’이라는 대학의 오명을 벗길 수 있다.

### 오윤자의 마음 코칭 - ④

## 벚꽃도 떨어지니 사랑할수록 떨어져라



오윤자 교수  
(아동가족학)

“그 사람을 사랑은 하는데 관계가 오래 지속이 안 되네요, 이 나이까지 세 명과 교제했는데 모두 3개월이면 관계가 깨졌어요.”

“지금 만나는 이와는 장거리 연애중인데, 매주 먼 거리를 오가며 만나다 보니 잠도 못 자고, 날씨는 봄인데 저는 피폐해요. 그런데도 머릿속엔 파트너에 대한 생각만 있어요.”

사랑이 주제인 이야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유행가의 내용을 들고 있다면 사랑에 죽고 사는 절절한 마음을 일게 한다. 드라마, 영화, 연극 역시 순간이나마 로맨틱한 분위기에 빠져들게 해준다. 다만 모양은 좀 다른 것 같다. 영화 <라라랜드>의 사랑은 옆에서 보긴 좋고 멋있지만 이별로 끝나니 주인공이 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커플처럼 그저 달달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환영이다.

### 사랑하기에 멀어지자

최근 수년 간 이성교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담사례는 거의 없었다. 발달시기로 볼 때 청년기와 성인 초기의 접점인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 중 하나가 친밀감 형성이다. 친밀감 형성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중 이성교제, 즉 연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성교제는 ‘남녀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사전적 정의의 단순함을 훨씬 넘어서는 인간관계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며 대소사는 물론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절이 된다’는 베이컨의 말을 증명하는 실례다. 이성교제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는 기실 궁극적인 가치를 거래하는 것이다. 도움이 되기 위해 만나다면 성취주의적 관계가,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 쾌락주의적 관계, 이도저도 아닌 관계의 만남은 허무주의적 관계가 된다.

대학생이라는 특정 발달시기의 이성교제는 사회화의 기능, 인격적 성장의 기능, 오락적 기능,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 배우자 선택의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교제의 관계에 감정적 사랑만 존재하는 듯, 비현실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실패 확률에도 불구하고 삼쌍둥이 분리수술을 시도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성교제의 안정적인 관계는 상대방을 흡수 통합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지의 사실 그대로 차이와 다름을 알고 인정하며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을 세워가야 하는 사이다. 이때 사랑은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

성하게 하고 우정 및 동반관계로서 삶의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한편, 이성교제를 통해 사랑의 감정만을 누리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기실 사랑에 흠뻑 빠져버린 사람은 조증상태의 환자와 비슷한 감정, 사고를 느낀다고 한다. 즉, 사랑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만 과장하고 이상화시켜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tunnel vision) 현상이나 절정의 기분만을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 상대의 부정적인 면까지 비현실적으로, 자신의 이상에 맞게 수정해 버린다. 사랑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병존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싶다.

### 성숙한 사랑으로 가는 길

두 가지 상담사례를 꼽아볼 수 있겠다. 우선 이성교제가 단기간으로 끝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성교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성의 스파링같이 파트너와 주고받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를 무시하는 갈등의 지속이나,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단절로 이르게 할 수 있

다. 좋기만 한 관계에도 갈등은 있으므로 덮어두기 보다는 해결이 중요하고, 자신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행동은 희생이므로 사랑에는 공평한 거래로 만족항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대를 당장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경우. 이는 어찌 보면 사랑이 아닌 환상이다. 거듭 강조했듯이 이성교제는 자신과 파트너가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므로 상호적으로 사랑이 성숙해가도록 해야 한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한 Beck에 의하면 성숙한 사랑은 따뜻한 감정, 배려, 애정표현, 수용, 공감, 민감성, 이해, 동료의식, 친밀, 우호, 기쁘게 하기, 지지 등이 기본이라고 하였다. 성숙한 사랑이 동반되는 이성교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 아무나 할 수 있으리요.

3개월에 식는 이성관계이든 짧은 사랑으로 붙어있기만을 원하는 이성관계이든 사랑만으로 살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행복이 있는 곳에는 사랑보다 우정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자.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결혼 후에는 한 눈만 뜨고 살라’는 스코틀랜드의 지혜로운 속담을 전하며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한다.